

사회

명절 코앞인데...성금·위문품 끊기고 기관·단체 후원도 뜰

복지시설 추석민심 '썰렁'

#1. 추석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지적·자폐성 장애인 그룹홈과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광주시 북구 안암동 엠마우스 복지관에서는 좀처럼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힘들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명절을 앞두고 밀려들던 성금과 위문품이 올해는 뜰 끊겼기 때문이다. 최근 2주간 2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쌀 20포(10kg)가 전부다.

있다. 올해는 고작 과일 몇 박스가 전부다. 벌써 내년이 걱정된다. 연중 어느 때보다 풍성해야 할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전남지역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은 썰렁하기만 하다. 지역 복지시설 등에는 성금과 위문품이 올해는 뜰 끊겼기 때문이다. 최근 2주간 2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쌀 20포(10kg)가 전부다.

원에 비해 6000만원이 줄었다. 전남 모금회는 지난 12일 전남에서 6번째로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으로 가입한 연산제일의원 김은규 원장이 2000만원을, 순천 디에스알제강(주)이 5000만원 물품이, 사랑의 열매에는 해마다 이어지던 기부금이 줄어들었다. 26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12년 추석 특별 모금기간'인 지난 17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모금된 성금은 모두 1억1800만원으로 지난 2010년(2억1800만원)과 지난해(2억1300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추석까지 며칠이 남았기는 하지만 문의가 전혀 없다.



목재탐방로 체험학습

광주시 북구청이 26일 광주호 호수 생태원 자연학습장에서 체험환경교육을 개최한 가운데 매곡초등학교 학생들이 목재탐방로 주변 식물들을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고속철 '안락해진다'

2015년부터 좌석수 늘리고 공간도 넓혀

오는 2015년부터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투입될 고속차량의 좌석 공간이 현 'KTX-산천'보다 더 넓어지고 좌석수도 대폭 늘어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KTX, KTX-산천 등 기존 고속차량의 문제점을 개선한 호남고속철 차량 220편성(220량)의 제작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호남고속철 차량은 그동안 공간이 협소해 이용객의 불편이 많았던 좌석의 무릎공간을 5.7~7.5cm(KTX 대비 7.5cm, KTX-산천 대비 5.7cm) 넓히고, 좌석수도 기존 편성보다 47석 많은 410석(특실 33석, 일반실 377석)으로 늘려 운행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이를 위해 고속차량에 항공기 좌석 등받이 구조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기존 고속차량의 가죽실, 부속실 등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과 방송실, 승무원실 등 기능이 중복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좌석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고 모바일 기기용 좌석별 전원 콘센트, 고효율 LED 조명, 항공기 타입의 좌석 테이블 등도 적용했다. 코레일은 좌석수의 증가로 하루 102회 운행시 수송능력이 기존에 비해 13%(4794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가위 보름달 볼 수 있다

광주·전남 구름만 살짝

올 추석(30일)에는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추석인 30일 밤 광주·전남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8~30일 오후까지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두 차례 비가 내리고, 30일 밤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많고 다소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석 연휴인 29일부터 다음달 1일 광주의 최저 기온은 14~16도, 최고 기온은 24~25도로 평년보다 다소 낮겠다. 한편 제17호 태풍 '젤라왓'(JELAWAT)과 제18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대 총장 재선거 후보 3명 확정

10월 17일 본선 투표

전남대학교 제19대 총장 재선거의 결선 후보 3명이 확정됐다. 전남대 총장 임용추진위원회는 26일 입후보한 13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직원 간접선거를 실시해 이중 오희균(치의학전문대학원)·윤택림(의과대학)·지병문(정치외교학과) 후보 등 3명을 선출했다. 후보자 간 담합 등을 우려해 결선 진출자 3명의 득표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선거는 1700여 교직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 교수(180명)와 직원(20명)의 투표로 진행됐다. 3명의 정식 후보 등록은 다음달

4~5일 2주간 공식 선거운동을 거쳐, 다음달 17일 본선 투표(직접선거)가 진행된다. 총장추천위는 직접선거에서 선출된 최종 1~2위 후보 2명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한다. 전남대는 20대 총장선거부터는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형식을 도입한 새로운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할 예정이어서 이번이 마지막 직선제다. 전남대는 지난 5월 19대 총장 선거를 치렀으나 과열 선거운동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1·2위 당선자가 모두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되면서 교과부 임명제정을 받지 못해 이번에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장성고 과학동아리 의미있는 도전

고교생 첫 성층권서 지구 촬영 시도

국내 최초로 고등학생들이 성층권(지상에서 12~45km 상공)에서 지구사진 촬영에 도전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성고등학교 과학동아리 '사이언스 울'과 함께 27~28일 고층기상관측 기관인 흑산도기상대에서 지구촬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이 진행하는 국내 최초 고층기상 관측 촬영 실험이다. 참가자들은 헬륨가스를 주입한 라디오존데에 소형캠코더를 장착해 30km 상공까지 띄운 뒤 지구를 촬영하게

된다. 기상청은 앞서 학생들에게 고층기상관측법 등을 사전교육했다. 또 캠코더를 하늘로 띄운 뒤 GPS자료를 제공해 낙하한 캠코더의 추적을 도울 예정이다. 고층기상관측은 대기의 연직 구조를 조사하기 위하여 고도별로 기상요소, 기온, 풍향, 풍속, 습도에 대하여 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기상청은 이번 탐구활동이 청소년들의 기상과학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4분 해질 18시 22분 달맞이 16시 30분 달지기 03시 21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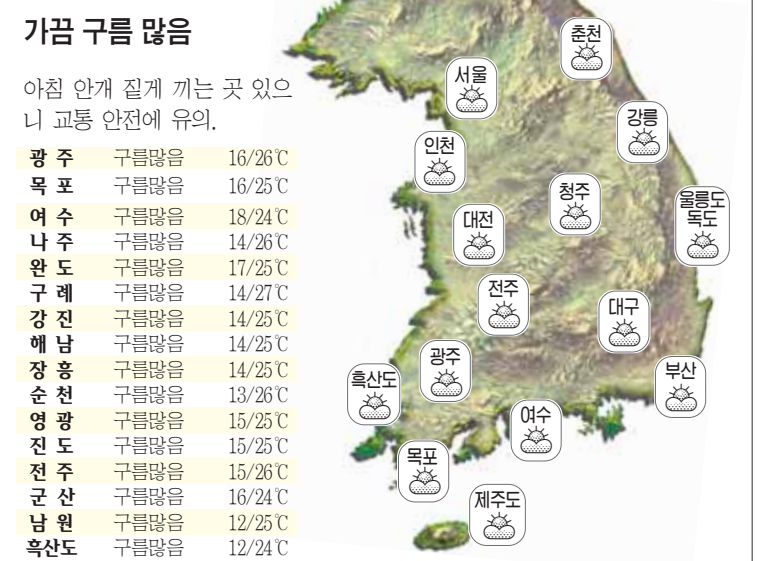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tide information, wind speed, and precipitation. Includes a section for '주간날씨' (Daily Weather) with a 7-day forecast.

"추석 암표 주의하세요"

코레일, 인터넷 카페 등 불법거래 기승

코레일은 2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는 암표 승차권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귀성·귀경 열차 고객을 노리고 판매되는 이런 불법 암표는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웃돈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 될 뿐 아니라,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승차권은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또는 지정 승차권판매대리점에서 구입해야 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이 동객 선호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심야시간대 좌석이 일부 남아있고, 연휴 전후와 역귀성 승차권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여유가 있다. 또 승차권 중 일부 구간은 좌석, 다른 구간은 입석으로 갈수 있는 병합승차권, 추가 운행 임시열차 승차권도 판매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두암2단지 환경개선

주폭 등 범죄 잡는다

주취 폭력이 난무하고 강력범죄가 잦아 원성을 사온 아파트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관리공단 사무소와 경찰 지구대, 알코올상담센터 등이 나섰다. 주택관리공단 광주 두암2관리사무

소는 26일 범죄 취약지역이 되고 있는 영구입대 아파트단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통합발전을 위한 '두암2단지 주거복지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주민간 다툼으로 주민 1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7월에는 아파트 내 정자에서는 주취폭력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강력범죄가 잇따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the '12th Gokseong County Cultural Festival' (제12회 곡성심청효문화대축제). It features a steam train, a traditional Korean festival scene, and text promoting the event from October 5th to 7th at Gokseong County. The festival includes a 'Story of Gokseong' (곡성이야기) and a 'Happy World' (행복한 세상) theme.